



미국 반려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 도입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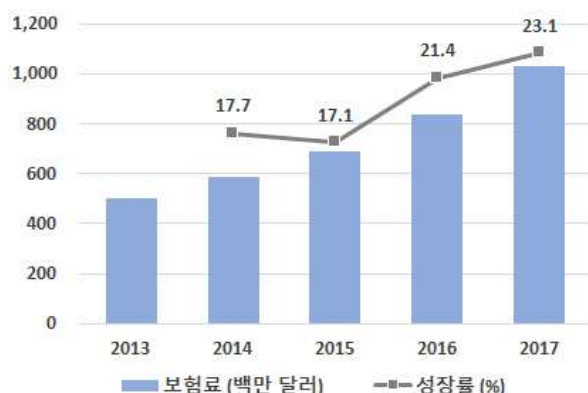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이하, 'NAIC'라 함)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감독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또한 NAIC는 반려동물보험 모델법을 작성 중이며, 면책사항 고지, 청약철회 제도,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법을 참고함. 우리나라도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초기 단계이므로 미국의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하여 반려동물보험의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집적 문제, 소비자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보험감독자협의회(이하, 'NAIC'라 함)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감독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2017년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약 1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종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개의 경우 2% 미만, 고양이의 경우 0.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보임(〈그림 2〉 참조)
- 2019년 4월 NAIC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성장으로 관련 감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및 인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가이드라인(A Regulator's Guide to Pet Insurance)을 발표함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모델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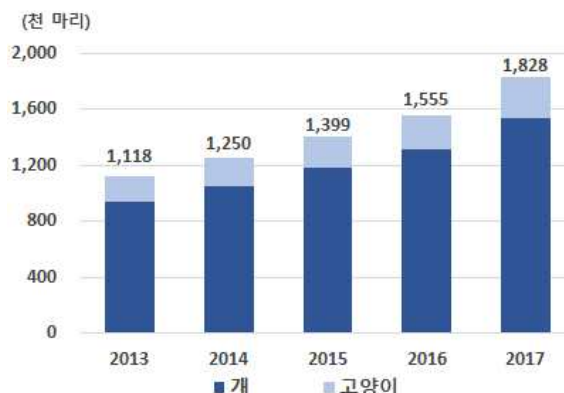
1) NAIC(2019. 8. 6), "The 2019 Summer National Meeting"

〈그림 1〉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 보험료 규모



자료: NAIC(2019. 4), “A Regulator’s Guide to Pet Insurance”

〈그림 2〉 미국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된 애완동물 수



주: APPA에 따르면 '17년 미국 가정의 약 68%가 적어도 1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 가구 중 약 6천만 명이 개를, 4천 5백만 명이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료: NAIC(2019. 4), “A Regulator’s Guide to Pet Insurance”

■ 미국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주로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판매회사의 책임소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일부 무자격자 판매,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중 상위 3개사²⁾가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회사명 대신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보험을 판매함
-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Agency)들은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보험금 지급 절차 및 소비자 요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및 민원 제기 시 보험회사와 대리점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일부 주³⁾에서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보험업을 허가 받지 않은 자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비면허자의 무분별한 판매,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험회사 Trupanion은 수의사에게 100달러를 초과하여 소개 수당을 지급하고 허가 받지 않은 자에게 판매 수수료로 약 24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워싱턴주 보험법 및 규칙을 위반하여 100,000달러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음⁴⁾

■ 반려동물보험은 건강·상해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재물보험으로 분류되고 있어 데이터를 분류·식별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선천적 질병 등에 의한 면책조항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낮고 민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이지

2) Nationwide 36.3%, Trupanion 18.6%, Healthy Paws Pet Insurance and Foundation 12.0%

3) 아이다 호,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

4) Office of the Insurance Commissioner(2019. 6. 25), “Kreidler fines Trupanion \$100,000 for using unlicensed sales partners”

못한 문제점이 있음

- 반려동물보험이 재물보험으로 분류되면서 반려동물보험 데이터를 다른 종목과 분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요율 산출에 지장이 있음
 - 대부분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입 연령을 모를 경우 수의사의 견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종별로도 의료비용이 상이하므로 요율 산출의 정교성이 요구됨
- 반려동물의 선천적 질병이 보험 가입과 보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낮은 편이며,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이 반려동물보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NAIC는 캘리포니아주의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을 참고하여 반려동물보험 모델법을 작성 중이며, 캘리포니아주 법은 면책사항 고지, 청약철회 제도,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함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반려동물보험의 가장 큰 시장으로 2014년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법률⁵⁾을 제정한 주이며(〈표 1〉 참조), 동 법은 반려동물보험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보험료 청구 및 보험금 지급, 보상(공동보험, 대기기간, 공제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 보험약관이 반려동물의 기존 상태, 선천성 기형 또는 장애, 유전적 장애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해 면책되는지의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후 30일 내의 청약 철회기간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함
- 보험회사는 보험 증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과 보험금 청구 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를 작성하고 보험료 산출 근거 및 일반적인 사항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표 1〉 미국 주별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

(단위: 건, %, million 달러)

주	보험 증권		보험료	
	개수	점유율	금액	점유율
캘리포니아	362,727	19.8	219.54	21.4
뉴욕	179,133	9.8	106.52	10.4
플로리다	116,855	6.4	64.94	6.3
뉴저지	104,844	5.7	61.96	6.0

자료: NAIC(2019. 8. 6), "The 2019 Summer National Meeting"

■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상황이 유사하며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3개 보험회사만이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했던 반면 2019년 현재 9개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을

5) CA Ins code §12880 ~ 12880.4 참조

판매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다양해짐

- 또한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반면 최근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 반려동물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진전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NAI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유럽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임

〈표 2〉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현황

판매회사	보험상품	상품특징
롯데손보	롯데마이반려동물보험	반려견, 반려묘 가입 가능, 다수반려동물 가정 10% 할인
현대해상	하이펫애견보험	반려견 전문, 총보상한도 500만 원
삼성화재	애니펫	반려견 전문, 총보상한도 1,000~1,500만 원
한화손보	펫플러스보험	최고 만 10세까지 가입 가능, 피부병, 슬개골 탈구 보장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반려견, 반려묘 특화 개별 상품, 3년 마다 갱신, 피부병, 슬개골 탈구 보장
DB손보	아이러브반려동물보험	3년 마다 갱신, 의료비 보장 만 20세까지, 피부병, 슬개골 탈구 보장
KB손보	사회적협동조합반려동물보험	사회적협동조합 전용보험
에이스손보	Chubb펫밀리보험 (다이렉트 전용)	반려견 생후 90일~만 10세 가입 가능, 기본견 300만 원, 특수견 200만 원 배상책임, 견주(0~70세) 골절, 김스치료비 보장
농협손보	반려동물장제비보험	반려견 사망 시에만 보장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미국의 반려동물보험 관련 감독 동향을 참고하여 반려동물보험의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데이터의 집적 문제, 소비자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판매상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상품 관련 용어, 보장범위, 면책사항,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보전달이 필요함
-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데이터의 집적과 동향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려동물보험 관련 데이터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어 보임
-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재물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생명과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인보험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 의견 청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